

## 주요 노동동향

### ● 생산 및 물가 동향

#### ◆ 2022년 7월 생산은 전월대비 0.1% 감소(전년동월대비 3.8% 증가)

-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,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, 광공업,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.1% 감소함.
  -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, 공공행정,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3.8% 증가함.
-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, 비금속광물 등에서 늘었으나, 반도체,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.5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+1.5%).
-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등에서 줄었으나, 숙박·음식점, 도소매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.3% 증가함(전년동월대비 +4.7%).

#### ◆ 2022년 7월 소비는 전월대비 0.3% 감소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.2% 감소

-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(1.9%) 판매가 늘었으나, 화장품 등 비내구재(-1.1%), 가전제품 등 내구재(-0.8%)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.3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-1.9%).
-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(-6.9%)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(-2.1%)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3.2% 감소함(전년동월대비 -2.2%).
- 건설기성(불변)은 전월대비 2.5% 감소, 건설수주(경상)는 전월대비 15.7% 감소함.

〈표 1〉 최근 경제일반 동향

(단위 : %, 전기(월)대비, ( ) 안은 전년동월대비)

		연간			분기				분기				월		
		2019	2020	2021	2020				2021				2021	2022	
		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7월	6월p	7월p
생산	전산업	1.0	-1.1	4.9	-1.5	-2.9	2.9	1.3	1.7	0.6	0.9	1.5	-0.8	0.8( 2.2)	-0.1( 3.8)
	광공업	0.4	-0.3	7.4	-0.5	-6.0	5.7	2.6	3.7	-0.6	1.0	1.1	0.3	1.7( 1.3)	-1.3( 1.5)
	제조업	0.5	-0.2	7.6	-0.5	-6.4	6.2	2.5	3.9	-0.7	0.9	1.3	0.1	1.6( 1.3)	-1.5( 1.5)
	건설업	-2.3	-2.1	-6.7	1.7	-2.3	-2.5	1.3	-5.2	-1.9	-1.1	4.1	-1.3	-1.2( 1.5)	-2.5( 2.0)
	서비스업	1.4	-2.0	4.4	-2.9	-1.5	2.2	0.9	0.6	1.7	1.1	1.5	0.0	-0.2( 4.0)	0.3( 4.7)
소비	소비재 판매	2.4	-0.2	5.9	-5.9	5.3	-0.4	1.1	1.7	2.2	0.8	1.1	0.0	-1.0(-1.5)	-0.3(-1.9)
투자	설비투자	-5.6	5.9	9.6	-2.0	2.5	2.9	1.4	6.0	0.7	-0.8	-0.2	0.2	4.0(-0.7)	-3.2(-2.2)
물가		0.4	0.5	2.5	0.3	-0.5	0.6	0.0	1.3	0.5	0.7	1.0	0.5	0.5( 6.3)	-0.1( 5.7)

- 주 : 1) 광공업 생산은 광업(B), 제조업(C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)을 포함.
- 2)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 개정)상의 13개 대분류(도소매업(G), 운수 및 창고업(H), 숙박 및 음식점업(I), 정보통신업(J), 금융 및 보험업(K), 부동산업(L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(N), 교육서비스업(P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Q), 예술·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R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S), 수도·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E))를 포괄함.
- 3)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.
- 4)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8월, 2022년 7월, 2022년 8월 기준임.
- 5) p는 잠정치임.
- 6) 생산, 소비,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(월)대비,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.
- 7) ( )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.

자료 : 통계청, 『산업활동동향』, 『소비자물가동향』, 각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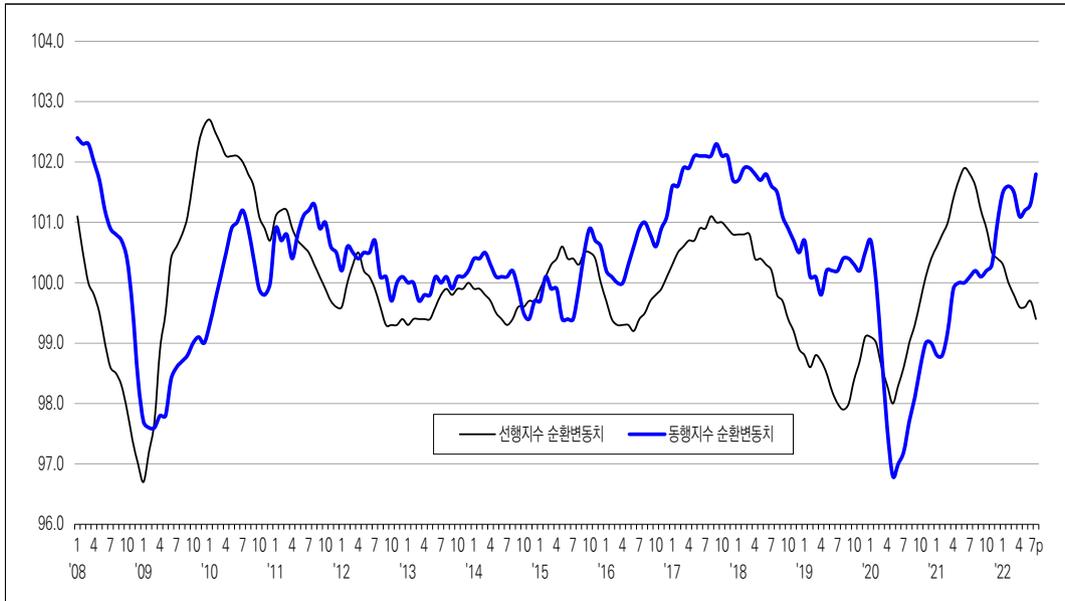
### ◆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.1% 하락(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.5% 하락)

-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.62(2020=100)로 전월대비 0.1% 하락함(전년동월대비 5.7% 상승).
  -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, 전월대비 식료품·비주류음료(1.4%), 음식·숙박(0.9%), 오락·문화(0.7%)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(0.2%), 가정용품·가사서비스(0.6%), 보건(0.2%), 기타 상품·서비스(0.2%), 교육(0.1%), 의류·신발(0.1%), 주류·담배(0.1%)는 상승, 통신은 변동 없으며, 교통(-4.9%)은 하락함.
  -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.1% 상승,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1.5% 하락하여 전월대비 0.5% 하락함.

◆ 2022년 7월 동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.7% 증가,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5p 상승함.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.3p 하락함.

[그림 1]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·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(2015=100)



주 : p는 잠정치임.  
 자료 : 통계청, 『경기종합지수』, KOSIS.

(이기쁨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● 고용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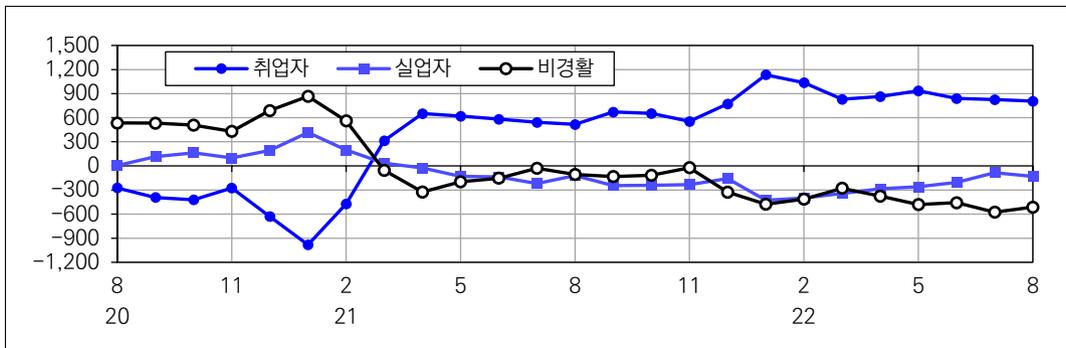
◆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,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

○ 2022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0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(전월대비<sup>1)</sup> 2만 2천 명 증가).

- (산업별) 8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건설업은 감소 전환됨. 서비스업은 대면서비스업인 음식숙박 및 예술스포츠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교육서비스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
- (연령별) 8월은 15~19세에서 전년동월대비 음식숙박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며 증가 전환됨. 30대는 주로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. 20대는 건설업 증가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에서 감소 전환되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.
- (종사상 지위별) 8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폭이 확대됨.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.
- (일시휴직자) 8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4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(7월 -6만 9천 명)됨. 전월대비로는 1만 5천 명 감소함.
- (실업자) 8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(7월 -8만 4천 명)됨. 전월대비로는 13만 1천 명 감소함.

[그림 1] 취업자, 실업자, 비경황 증감 현황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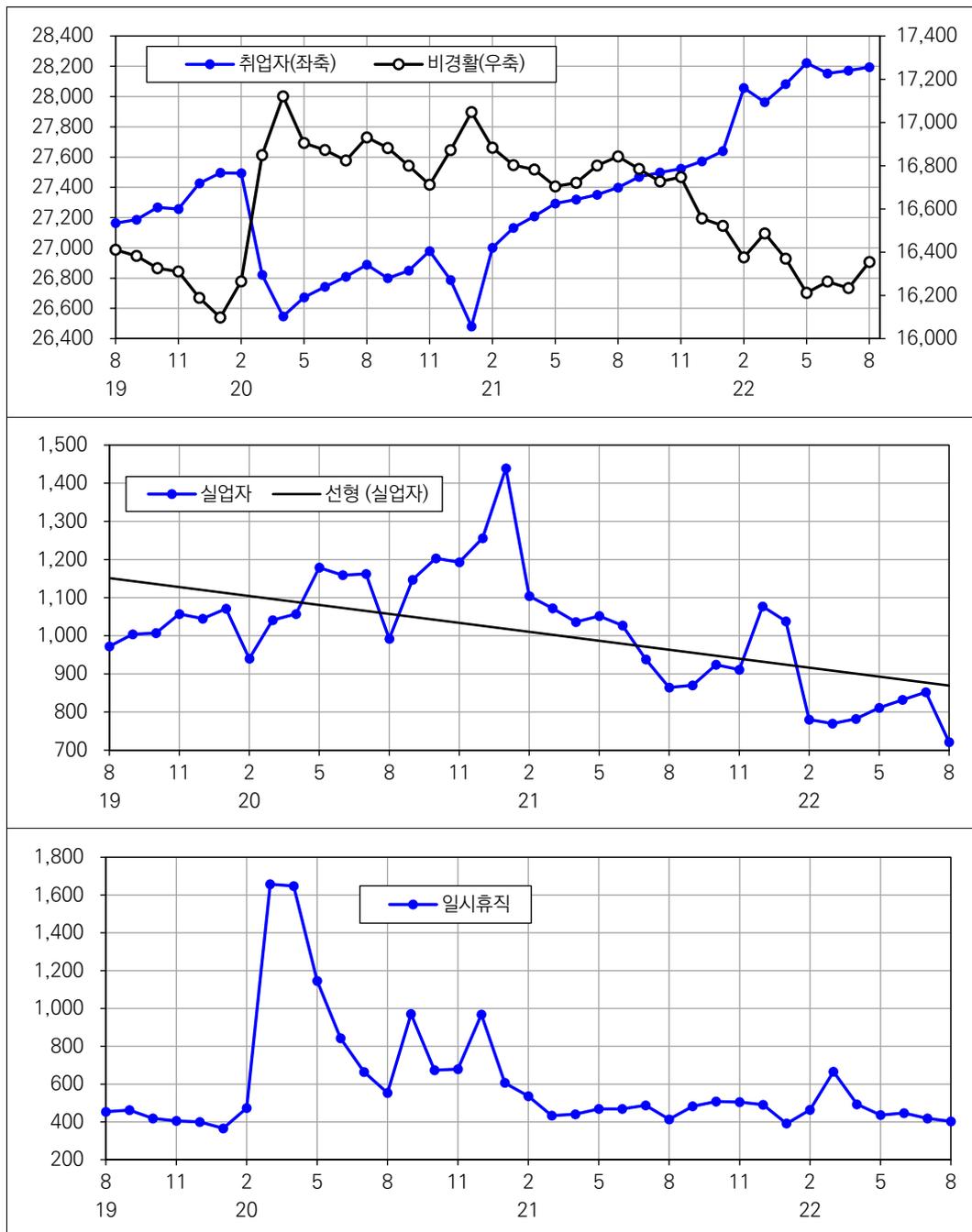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1)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.

[그림 2] 계절조정 취업자, 비경제활동인구, 실업자, 일시휴직자 변화

(단위 : 천 명)



주 : 일시휴직자는 X-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.  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2022년 8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15~19세에서 증가 전환되고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20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. 비경제활동인구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.
- 전년동월대비 15~19세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20대 취업자는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정보통신업에서는 감소 전환됨. 전문과학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. 3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관리지원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

〈표 1〉 연령별 취업자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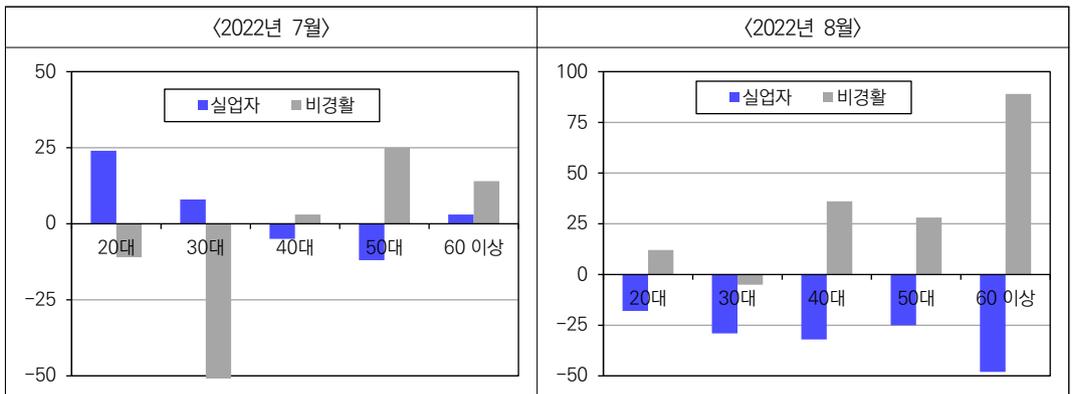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%, 전년동월대비, ( )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)

	15~19세				20대				30대			
	6월	7월	8월	(전월비)	6월	7월	8월	(전월비)	6월	7월	8월	(전월비)
취업자	-12	-4	16	( 8)	117	95	65	(-12)	18	62	98	( 29)
실업자	-14	0	-3	( -6)	-72	-13	-11	(-18)	3	6	-13	(-29)
비경황	-41	-59	-68	( -1)	-193	-239	-209	( 12)	-151	-194	-206	( -5)
실업률	-5.8	0.2	-1.9	(-3.3)	-1.8	-0.5	-0.4	(-0.4)	0.1	0.0	-0.2	(-0.5)
고용률	-0.3	0.0	0.9	(0.3)	3.2	2.9	2.5	(0.0)	1.7	2.2	2.7	(0.5)
	40대				50대				60세 이상			
	6월	7월	8월	(전월비)	6월	7월	8월	(전월비)	6월	7월	8월	(전월비)
취업자	2	-1	-8	(-13)	245	194	182	( -3)	472	479	454	( 3)
실업자	-21	-9	-16	(-32)	-54	-38	-38	(-25)	-48	-31	-48	(-48)
비경황	-51	-65	-56	( 36)	-142	-113	-107	( 28)	122	95	135	( 89)
실업률	-0.3	-0.1	-0.2	(-0.5)	-0.9	-0.7	-0.6	(-0.3)	-0.9	-0.7	-0.9	(-0.7)
고용률	0.7	0.7	0.6	(-0.1)	2.4	1.8	1.8	(0.0)	1.7	1.8	1.6	(-0.1)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그림 3〉 연령별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: 계절조정계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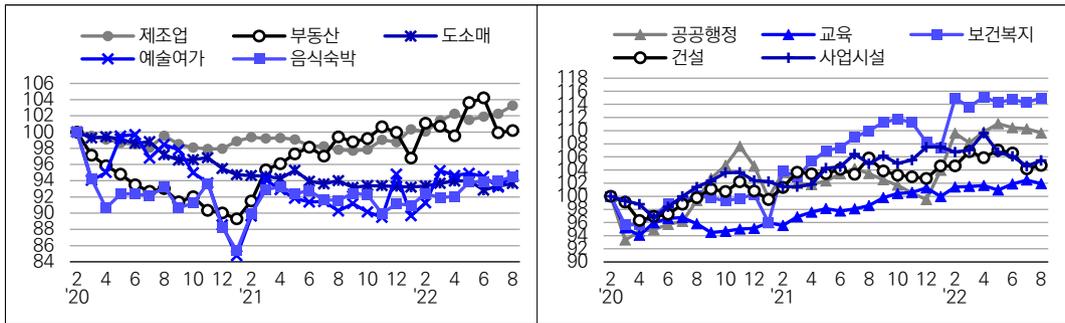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전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- (전월대비) 산업별로는 공공행정, 교육이 감소함. 부동산은 정체된 반면 제조업, 도소매, 음식숙박, 예술여가, 보건복지, 건설, 사업시설은 개선됨.
- 도소매, 예술여가,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.

[그림 4]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: 계절조정계열,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<표 2>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명, %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	3개월 전 대비(계절조정계열)	
	6월	7월	8월	6월	7월	8월	증감	증감률
농림어업	89	93	90	-21	9	2	-11	-0.7
광업	-2	-3	-6	-2	-1	-2	-5	-47.4
제조업	158	176	240	19	15	45	79	1.8
전기·가스·증기	9	16	12	-2	6	-1	4	5.1
수도·원료재생	-25	-29	-26	-11	1	0	-10	-6.6
건설업	50	16	-22	-9	-49	11	-47	-2.2
도매 및 소매업	-37	-10	-14	-41	18	11	-12	-0.3
운수 및 창고업	126	83	75	17	-15	-22	-21	-1.2
숙박 및 음식점업	28	54	67	1	3	12	15	0.7
정보통신업	76	95	72	6	1	-2	5	0.5
금융 및 보험업	-59	-21	-12	-11	24	1	14	1.8
부동산업	33	16	4	3	-24	2	-19	-3.3
전문·과학·기술	41	86	80	-2	29	-9	18	1.4
사업시설관리지원	21	-25	6	-8	-20	12	-17	-1.2
공공행정·사회보장	80	68	71	-7	-2	-7	-16	-1.3
교육서비스업	79	84	62	17	11	-10	18	1.0
보건 및 사회복지	177	130	123	11	-11	17	17	0.6
예술·스포츠·여가	16	9	23	-2	-7	7	-1	-0.3
협회·단체·수리·기타	-16	-23	-39	-18	-1	-10	-28	-2.5
가구 내 고용·자가소비	-2	4	-4	4	5	-5	4	4.8
국제 및 외국기관	0	4	5	0	3	1	4	27.7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8월은 상용직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확대된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 자영업자는 변동 추세가 이어짐.

- 상용직은 제조업, 음식숙박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, 전문과학 및 정보통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. 임시직은 건설업에서 증가 전환된 반면 보건복지에서 감소 전환되고 도소매 및 교육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
-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.

〈표 3〉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 명, %)

	전년동월대비(원계열)			전월대비(계절조정계열)			3개월 전 대비(계절조정계열)	
	6월	7월	8월	6월	7월	8월	증감	증감률
상용직	899	895	907	8	80	13	101	0.6
임시직	-53	-52	-78	-66	13	-9	-61	-1.3
일용직	-79	-77	-97	-28	-26	24	-30	-2.6
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121	78	53	34	-39	-11	-17	-1.2
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6	49	88	-9	34	21	46	1.1
무급가족종사자	-53	-67	-65	4	-18	-7	-21	-2.2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〈표 4〉 종사상 지위별,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	상용직			임시직			일용직			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		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	
	6월	7월	8월	6월	7월	8월	6월	7월	8월	6월	7월	8월	6월	7월	8월
농림어업	0	-1	1	14	5	1	-2	-2	-10	21	8	7	45	74	84
제조업	162	208	240	10	14	33	-1	-14	-10	27	19	19	-26	-29	-29
건설업	87	61	31	7	-2	31	-41	-33	-63	17	10	11	-6	-8	-18
도소매	77	87	101	-57	-22	-42	-1	-4	-10	7	-4	5	-34	-31	-31
운수창고	46	20	22	27	8	-4	-9	-2	6	13	11	4	49	46	45
음식숙박	44	47	69	2	36	21	-17	-10	-2	0	0	4	-9	-21	-23
정보통신	71	92	80	-2	-12	-10	0	1	-5	1	1	0	5	12	6
금융보험	-33	-7	-24	-34	-20	-1	2	2	3	3	3	5	3	1	5
부동산	23	4	-4	7	10	3	-3	0	-1	7	5	4	0	-4	0
전문과학기술	67	105	87	-35	-32	-27	-6	-3	1	8	9	4	10	9	17
사업관리지원	7	-20	-8	9	1	2	-8	-20	-6	6	9	-1	2	3	15
공공행정	96	100	95	-14	-32	-23	-2	0	-1	-	-	-	-	-	-
교육서비스	65	70	61	-2	-9	-28	1	1	6	9	7	1	8	17	28
보건복지	152	120	158	25	3	-36	3	2	0	-3	0	-1	3	6	4
예술스포츠	11	-5	-10	-8	-9	8	5	1	-2	0	3	0	13	16	24
협회단체	46	34	28	0	1	-8	0	0	0	4	-4	-11	-57	-44	-42
가구 내 고용	0	0	-2	-4	-2	-3	2	5	0	0	0	0	0	1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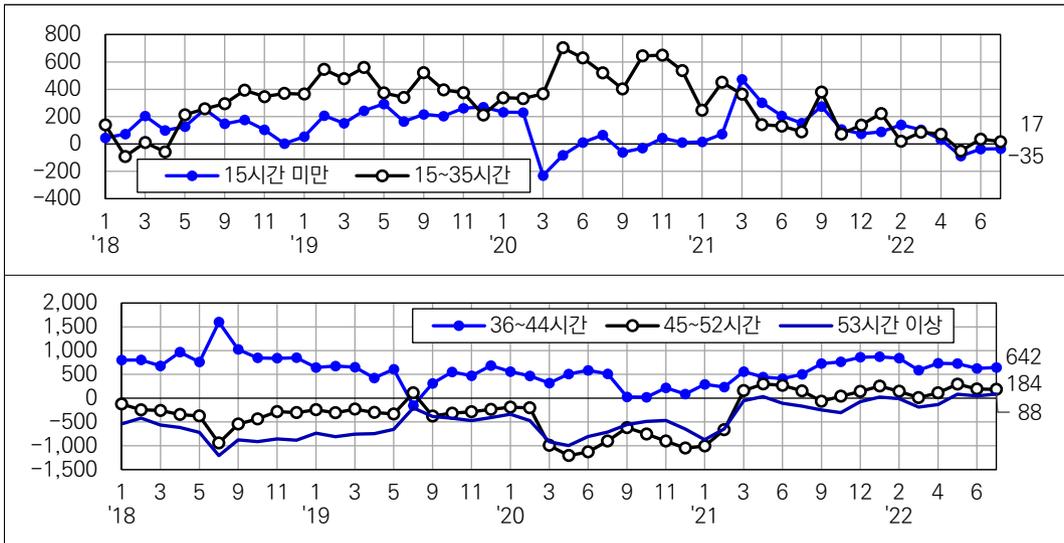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2022년 8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6.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.6시간 감소함.

－ 이는 2022년 8월 조사기간 중에 공휴일(광복절)이 포함된 영향 때문임.

[그림 5]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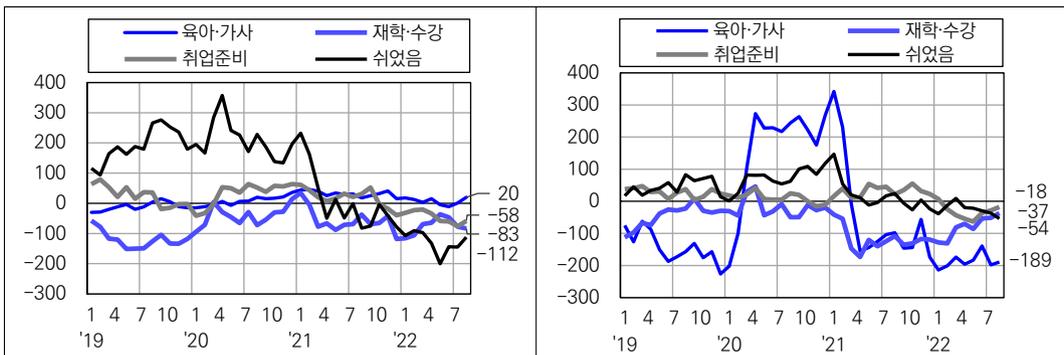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-51만 2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(7월 -57만 5천 명)됨.

－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-23만 9천 명으로 취업준비 및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 여성은 -27만 3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그 외에서 감소폭이 축소됨.

[그림 6] 성별(남자 : 좌, 여자 : 우)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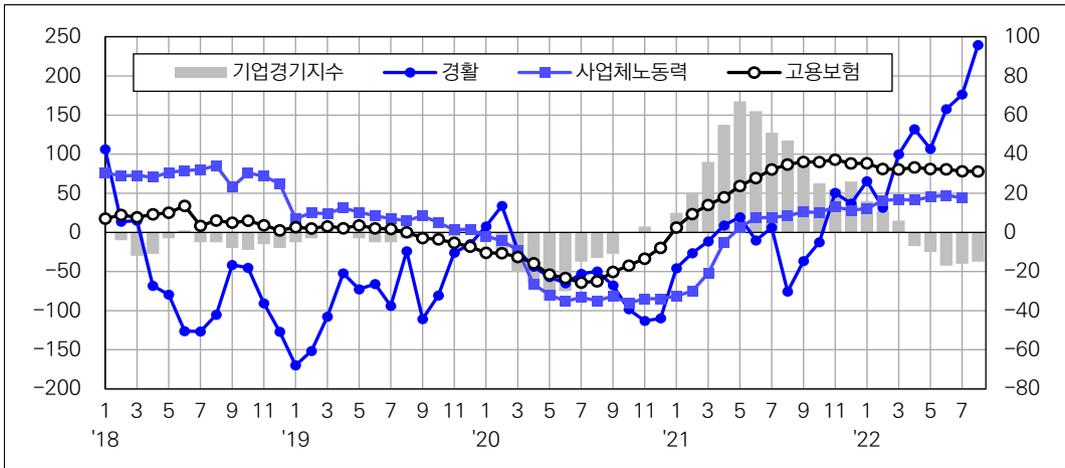
◆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,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

○ 2022년 8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4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.

-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유지된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축소됨. 피보험자는 주로 전자통신, 금속가공, 식료품, 기계장비 및 전기장비에서 증가함.
-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4만 5천 명 증가함.

[그림 7] 제조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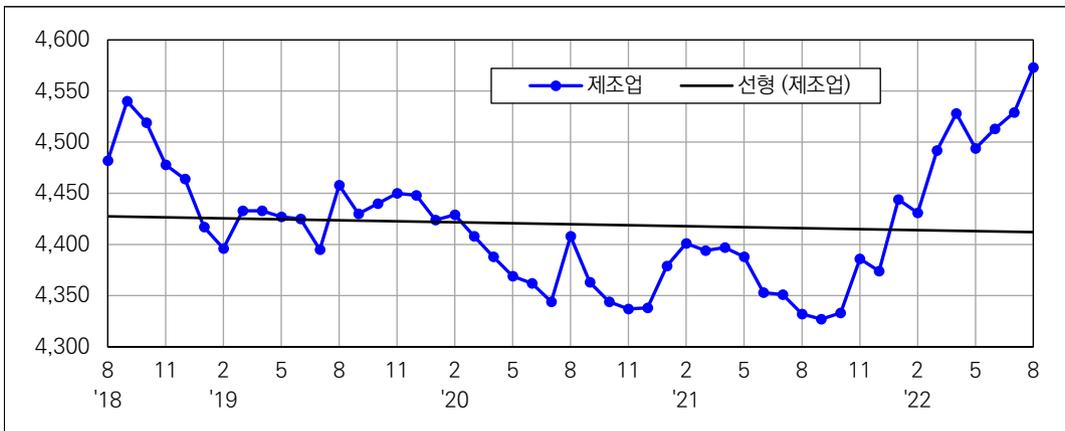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8]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

(단위 : 천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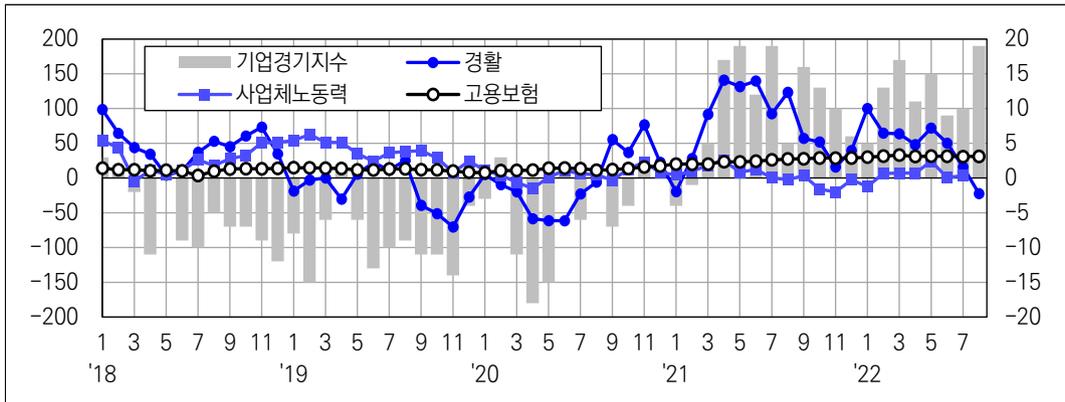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○ 2022년 8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 감소하며 감소 전환됨.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변동 없음.

[그림 9] 건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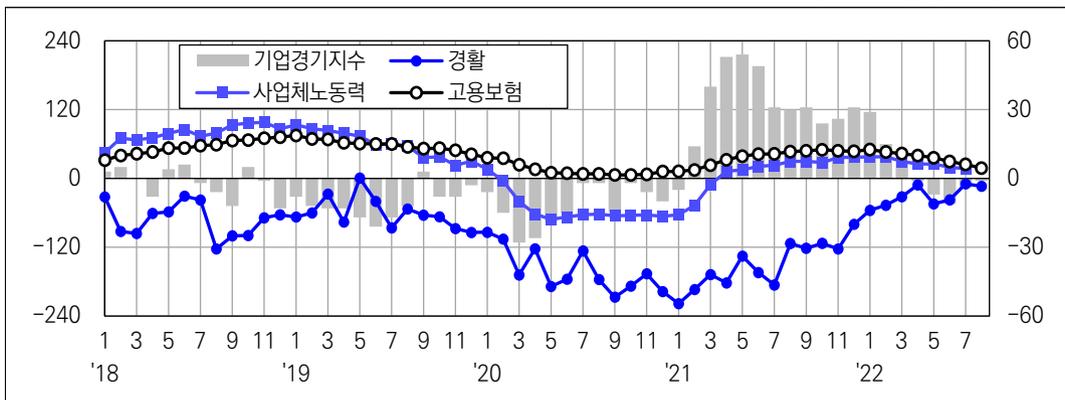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○ 2022년 8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9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.

- (도소매)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임. 그 외 고용지표는 증가폭이 축소됨.
- (음식숙박) 모든 고용지표 및 생산지수의 증가폭이 확대됨.
- (교육서비스) 모든 고용지표의 증가폭이 축소됨. 생산지수는 감소 전환됨.
- (예술스포츠) 경찰 취업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증가폭이 확대됨.

[그림 10]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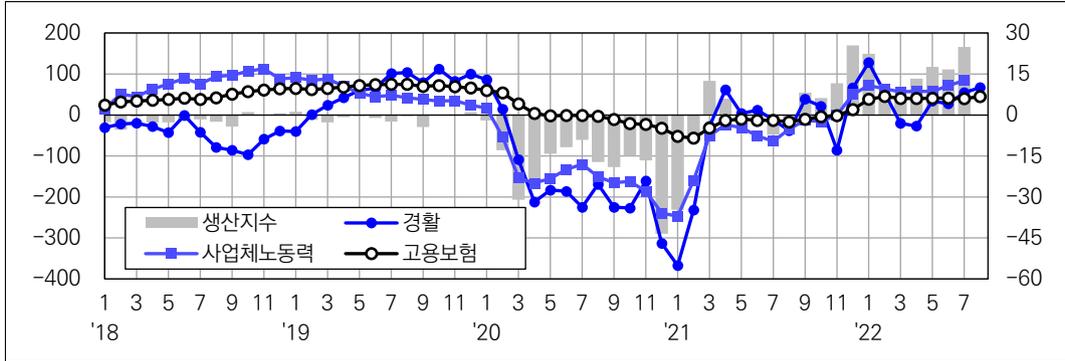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[그림 11]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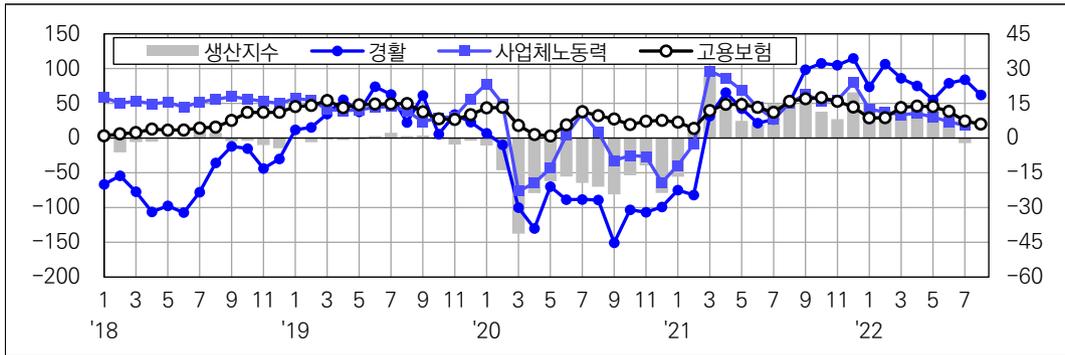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2]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생산(학원)지수(우)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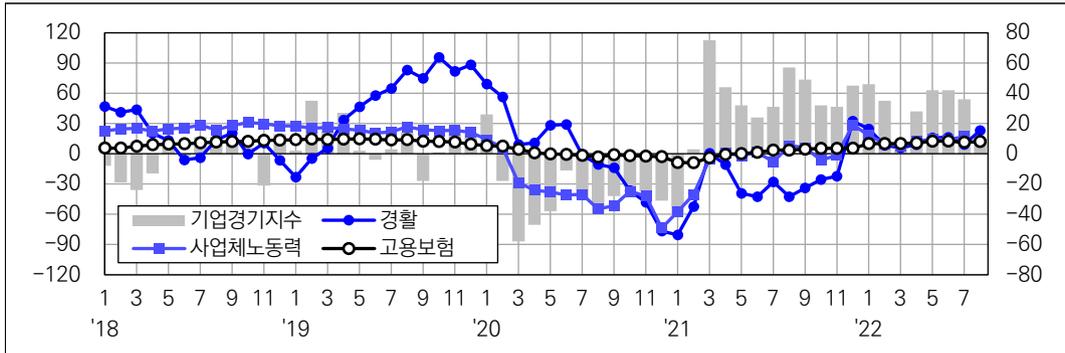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.

[그림 13]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(좌) 및 기업경기지수(우) 증감

(단위 : 천 명, p, 전년동월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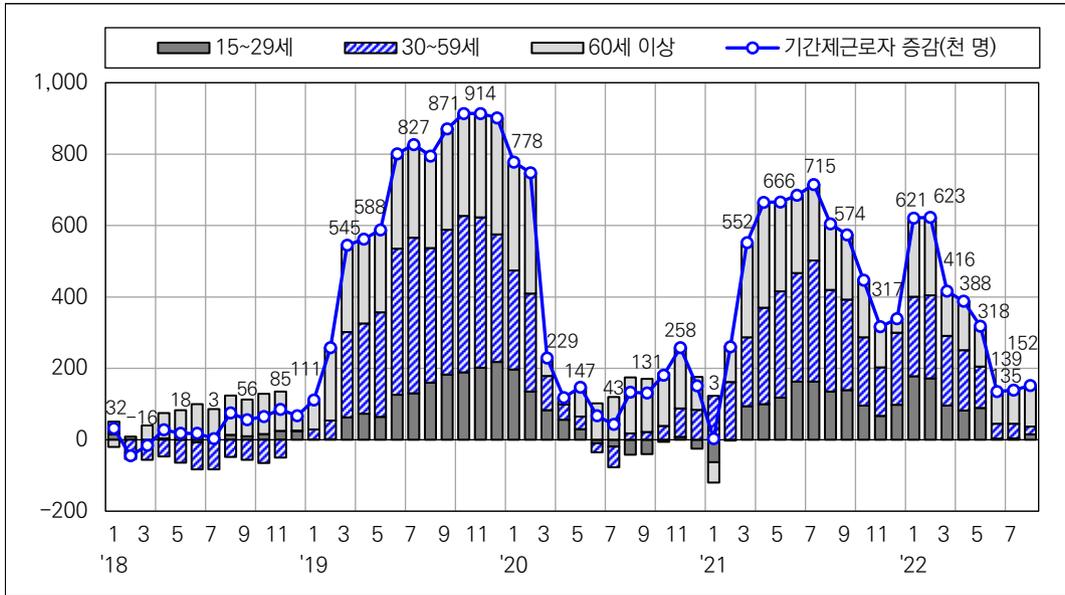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」; 한국은행, 「기업경기조사」.

○ 2022년 8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5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. 기간제는 연령별로 30~59세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15~29세 및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됨.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'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'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.

[그림 14]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

(단위 : 천 명, 전년동월대비)

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 연도.

(지상훈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

## ●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### ◆ 2022년 6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.9% 증가

- 2022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6만 3천 원(4.9%)임.
  - － 2022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86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.0% 증가,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5만 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.3% 증가함.
  - －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정액급여의 증가폭 확대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.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, 금융 및 보험업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, 숙박 및 음식점업(6.7%p)과 교육서비스업(3.3%p) 부문에서 크게 증가함.
  - ※ 초과급여 :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
특별급여 :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
-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(2020=100.0)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.1% 감소함.

〈표 1〉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, 2020=100.0)

근로자	2018	2019	2020	2021	2021		2022	
					1~6월	6월	1~6월	6월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	3,376 ( 5.3)	3,490 ( 3.4)	3,527 ( 1.1)	3,689 ( 4.6)	3,637 ( 4.0)	3,492 ( 4.2)	3,846 ( 5.8)	3,663 ( 4.9)
상용 근로자	임금총액	3,592 ( 5.1)	3,702 ( 3.1)	3,719 ( 0.4)	3,893 ( 4.7)	3,832 ( 4.2)	4,065 ( 6.1)	3,865 ( 5.0)
	정액급여	2,891 ( 4.6)	3,010 ( 4.1)	3,077 ( 2.2)	3,181 ( 3.4)	3,156 ( 3.1)	3,166 ( 3.6)	3,286 ( 4.1)
	초과급여	197 ( 3.7)	202 ( 2.7)	200 (-0.9)	208 ( 3.7)	205 ( 4.7)	208 ( 9.5)	217 ( 5.8)
	특별급여	504 ( 8.5)	490 (-2.8)	441 (-9.9)	504 (14.3)	472 (11.8)	306 ( 9.4)	562 (19.1)
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	1,428 ( 5.5)	1,517 ( 6.2)	1,636 ( 7.8)	1,700 ( 3.9)	1,686 ( 4.1)	1,711 ( 3.4)	1,735 ( 2.9)	1,751 ( 2.3)
소비자물가지수	104.5 ( 1.5)	105.1 ( 0.4)	105.7 ( 0.5)	104.0 ( 2.5)	102.1 ( 2.0)	102.1 ( 2.3)	108.2 ( 4.6)	108.2 ( 6.0)
실질임금증가율	3.7	3.0	0.5	2.0	2.1	1.8	1.1	-1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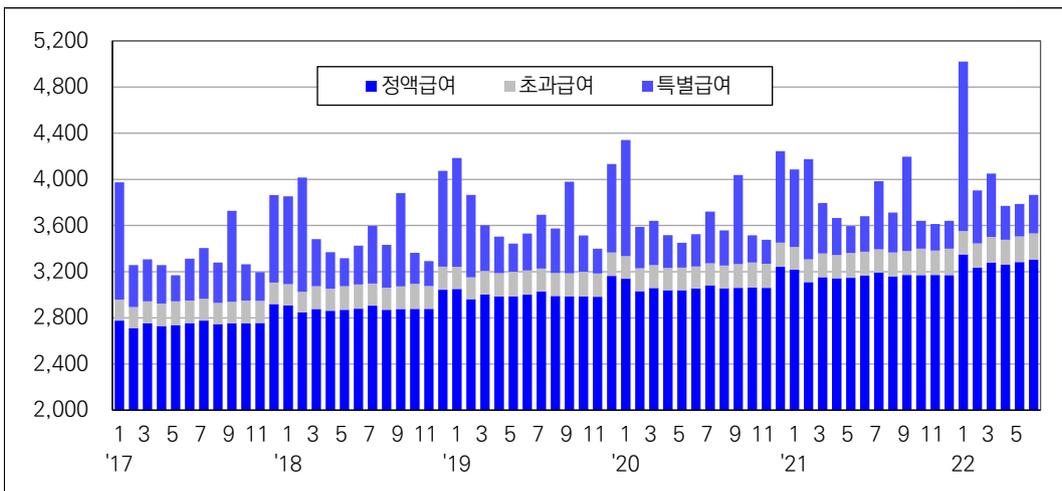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; 통계청, <https://kosis.kr/>

〈그림 1〉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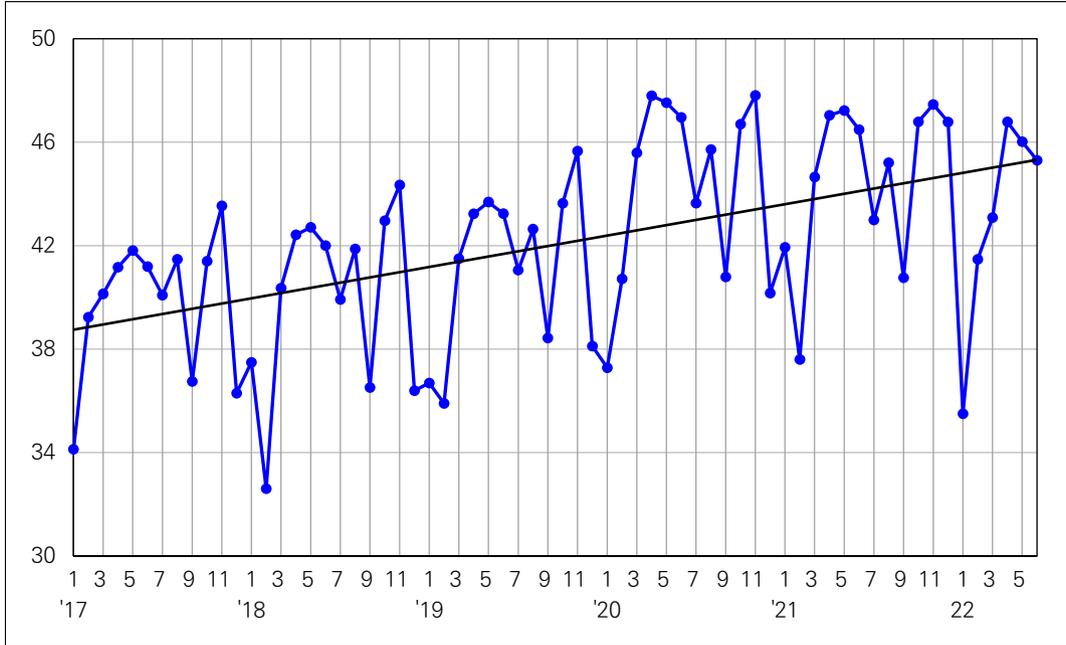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원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[그림 2] 임시·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

(단위: %, 상용직 임금=100)

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2년 6월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2022년 6월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.0%, 4.3% 증가함.
  - － 중소기업(1~299인) 사업체·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.2%, 4.5% 증가함.
  - －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은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축소됨.
  - －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.0%, 5.6% 증가함.
- 2022년 1~6월 평균 중소·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4.6%, 9.2%임.
  - － 전반적으로 제조업, 금융 및 보험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,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임.

〈표 2〉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 : 천 원, %)

		2020	2021	2021		2022	
				1~6월	6월	1~6월	6월
중소 규모	소 계	3,193 ( 1.7)	3,316 ( 3.8)	3,268 ( 3.5)	3,210 ( 4.0)	3,417 ( 4.6)	3,371 ( 5.0)
	상용임금총액	3,377 ( 1.2)	3,510 ( 3.9)	3,453 ( 3.7)	3,394 ( 4.2)	3,620 ( 4.8)	3,570 ( 5.2)
	정액급여	2,915 ( 2.6)	3,012 ( 3.4)	2,989 ( 3.1)	3,005 ( 3.5)	3,110 ( 4.1)	3,138 ( 4.4)
	초과급여	171 ( -2.4)	176 ( 2.9)	173 ( 4.3)	175 ( 8.5)	184 ( 5.9)	192 (10.1)
	특별급여	292 ( -9.4)	322 (10.4)	291 ( 9.3)	214 (10.2)	327 (12.1)	240 (12.1)
	비상용임금총액	1,615 ( 7.3)	1,671 ( 3.4)	1,662 ( 4.0)	1,696 ( 3.3)	1,703 ( 2.4)	1,730 ( 2.0)
대규모	소 계	5,242 ( -2.1)	5,582 ( 6.5)	5,507 ( 5.0)	4,926 ( 4.5)	6,012 ( 9.2)	5,138 ( 4.3)
	상용임금총액	5,335 ( -2.8)	5,687 ( 6.6)	5,606 ( 5.1)	5,018 ( 4.8)	6,139 ( 9.5)	5,243 ( 4.5)
	정액급여	3,847 ( 0.1)	3,973 ( 3.3)	3,938 ( 2.7)	3,918 ( 3.8)	4,107 ( 4.3)	4,087 ( 4.3)
	초과급여	340 ( 1.4)	357 ( 5.1)	352 ( 5.0)	362 (11.4)	371 ( 5.5)	393 ( 8.4)
	특별급여	1,149 (-12.5)	1,357 (18.1)	1,317 (13.2)	737 ( 7.7)	1,661 (26.2)	763 ( 3.5)
	비상용임금총액	2,029 ( 18.5)	2,214 ( 9.1)	2,129 ( 5.5)	1,979 ( 1.5)	2,257 ( 6.0)	2,090 ( 5.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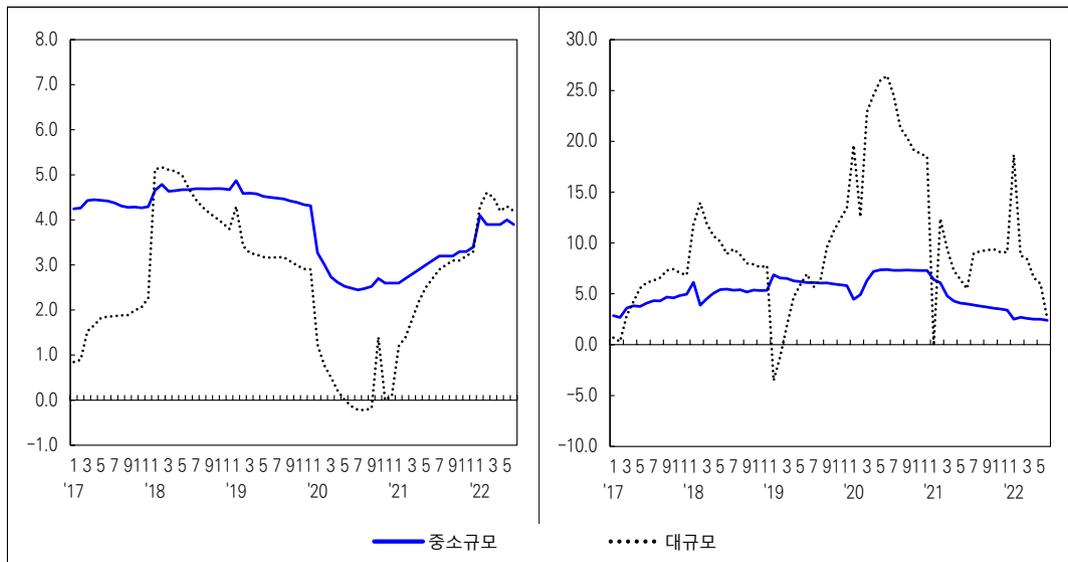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〔그림 3〕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(좌, 누계)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(우, 누계) 추이

(단위 : %)



주 :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.

자료 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2년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산업에서 증가

- 2022년 6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7.6%), 도매 및 소매업(6.6%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6.4%) 부문으로 6~7%대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1.7%), 교육서비스업(1.9%)은 평균상승률(4.9%)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- 2022년 6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854만 9천 원)이었으며,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(613만 1천 원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519만 4천 원) 순인 가운데,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(199만 8천 원)으로 나타남.

〈표 3〉 산업별 임금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, 제10차 표준산업분류)

(단위: 천 원, %)

	2020	2021	2021		2022	
			1~6월	6월	1~6월	6월
전 산업	3,527	3,689( 4.6)	3,637( 4.0)	3,492( 4.2)	3,846( 5.8)	3,663( 4.9)
광업	4,325	4,415( 2.1)	4,288( 1.0)	4,118(-6.5)	4,498( 4.9)	4,335( 5.2)
제조업	3,990	4,239( 6.2)	4,156( 5.6)	3,877( 6.3)	4,489( 8.0)	4,083( 5.3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6,733	6,753( 0.3)	6,529( 1.1)	8,405( 5.1)	6,670( 2.1)	8,549( 1.7)
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	3,888	4,094( 5.3)	3,955( 5.2)	3,977( 2.8)	4,041( 2.2)	4,152( 4.4)
건설업	3,032	3,106( 2.4)	3,072( 1.1)	3,080( 2.2)	3,201( 4.2)	3,227( 4.8)
도매 및 소매업	3,423	3,551( 3.7)	3,502( 3.5)	3,386( 3.8)	3,701( 5.7)	3,610( 6.6)
운수 및 창고업	3,530	3,795( 7.5)	3,617( 5.7)	3,650( 8.3)	3,828( 5.8)	3,781( 3.6)
숙박 및 음식점업	1,879	1,905( 1.4)	1,879( 0.3)	1,857( 1.4)	1,975( 5.1)	1,998( 7.6)
정보통신업	4,613	4,796( 4.0)	4,878( 4.2)	4,528( 2.5)	5,075( 4.1)	4,733( 4.5)
금융 및 보험업	6,526	6,963( 6.7)	7,109( 8.1)	5,935( 2.8)	7,602( 6.9)	6,131( 3.3)
부동산업	2,848	2,954( 3.7)	2,938( 4.4)	2,890( 0.6)	3,101( 5.5)	2,989( 3.4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4,871	5,106( 4.8)	4,919( 2.6)	4,881( 3.9)	5,261( 7.0)	5,194( 6.4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2,411	2,492( 3.4)	2,463( 3.2)	2,438( 3.7)	2,562( 4.0)	2,553( 4.7)
교육서비스업	3,366	3,355(-0.3)	3,378(-0.7)	3,161(-1.1)	3,439( 1.8)	3,222( 1.9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2,942	3,014( 2.5)	2,976( 1.9)	2,950( 2.7)	3,091( 3.9)	3,054( 3.5)
여가 관련 서비스업	2,873	2,994( 4.2)	2,931( 3.8)	2,826( 4.5)	3,017( 2.9)	2,924( 3.5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2,563	2,700( 5.4)	2,662( 5.7)	2,625( 5.6)	2,788( 4.7)	2,713( 3.3)

주: 1)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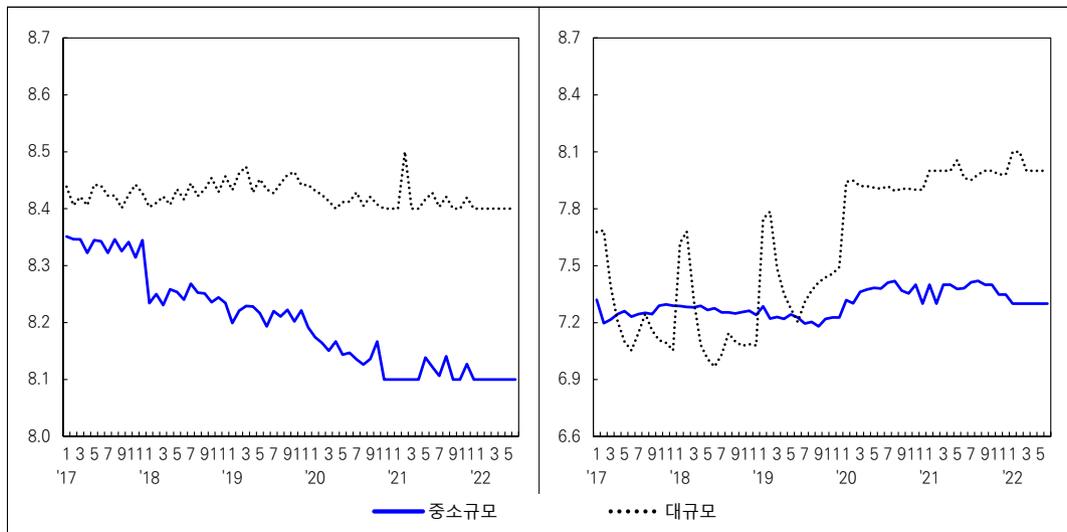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◆ 2022년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.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.2시간 감소(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)

- 2022년 6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.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.3시간 감소하였고,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9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.1시간 감소함.
  -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, 6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한 영향이 큼.
  -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.
- 2022년 1~6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.6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.2시간 감소함.
  - 2022년 1~6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평균대비 2일 감소한 것과 코로나19(오미크론)의 확진자 급증 등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줌.
- 중소기업·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56.2시간, 158.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.2시간, 12.8시간 감소함.

[그림 4]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(좌, 누계)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(우, 누계) 추이 (단위: 시간/일)



주: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,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,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〈표 4〉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시간, %)

		2020	2021	2021		2022	
				1~6월	6월	1~6월	6월
중소 규모	전체 근로시간	160.1(-1.8)	160.3( 0.1)	159.3( 0.1)	168.4( 1.0)	156.3(-1.9)	156.2(-7.2)
	상용 총근로시간	167.6(-2.1)	167.8( 0.1)	166.5( 0.2)	176.6( 1.0)	163.4(-1.9)	163.2(-7.6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9.8(-1.7)	160.1( 0.2)	158.8( 0.1)	169.0( 0.8)	155.7(-2.0)	155.3(-8.1)
	상용 초과근로시간	7.8(-9.3)	7.7(-1.3)	7.7( 1.3)	7.6( 5.6)	7.7( 0.0)	8.0( 5.3)
	비상용 근로시간	96.1( 0.7)	97.4( 1.4)	96.7( 1.6)	100.5( 2.1)	96.2(-0.5)	98.5(-2.0)
대규모	전체 근로시간	162.8(-0.8)	162.3(-0.3)	162.4( 0.1)	171.6( 0.5)	158.1(-2.6)	158.8(-7.5)
	상용 총근로시간	163.9(-1.4)	163.4(-0.3)	163.5( 0.2)	172.9( 0.6)	159.3(-2.6)	160.0(-7.5)
	상용 소정실근로시간	153.0(-1.2)	152.3(-0.5)	152.5( 0.1)	161.9( 0.2)	148.2(-2.8)	148.5(-8.3)
	상용 초과근로시간	10.9(-4.4)	11.1( 1.8)	11.0( 1.9)	11.1( 8.8)	11.1( 0.9)	11.5( 3.6)
	비상용 근로시간	125.2(19.4)	127.9( 2.2)	127.4( 1.4)	128.7(-0.2)	123.3(-3.2)	123.1(-4.4)

주: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  
 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### ◆ 2022년 6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

- 2022년 6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(174.2시간)이었으며, 다음으로 수도, 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(172.1시간), 제조업(169.9시간)으로 나타났으며,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(133.5시간)이었음.
- 월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(-8.7%), 정보통신업(-8.3%),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-8.3%)으로 나타남.

〈표 5〉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(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)

(단위: 시간, %)

	2020	2021	2021		2022	
			1~6월	6월	1~6월	6월
전 산업	160.6	160.7( 0.1)	159.8( 0.1)	168.9( 0.9)	156.6(-2.0)	156.7(-7.2)
광업	181.2	179.9(-0.7)	180.9( 1.3)	188.6( 1.1)	173.1(-4.3)	174.2(-7.6)
제조업	172.7	173.5( 0.5)	173.5( 1.2)	183.9( 3.5)	169.3(-2.4)	169.9(-7.6)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163.7	161.6(-1.3)	161.6(-0.5)	166.3(-1.4)	156.8(-3.0)	161.3(-3.0)
수도·하수·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	176.5	176.9( 0.2)	175.5( 0.2)	183.5(-0.6)	173.1(-1.4)	172.1(-6.2)
건설업	136.9	135.9(-0.7)	135.1(-1.5)	142.1(-0.8)	133.2(-1.4)	135.0(-5.0)
도매 및 소매업	163.8	163.8( 0.0)	162.8( 0.1)	171.9( 0.4)	160.1(-1.7)	159.5(-7.2)
운수 및 창고업	159.0	160.2( 0.8)	158.7( 0.3)	167.3( 1.5)	157.9(-0.5)	158.3(-5.4)
숙박 및 음식점업	149.7	148.4(-0.9)	145.9(-2.0)	152.1(-1.1)	144.3(-1.1)	146.5(-3.7)
정보통신업	163.8	164.1( 0.2)	163.0( 0.0)	173.6(-0.3)	160.1(-1.8)	159.2(-8.3)
금융 및 보험업	162.1	161.9(-0.1)	161.6( 0.1)	171.6(-0.5)	157.0(-2.8)	156.6(-8.7)
부동산업	173.2	171.8(-0.8)	170.7(-0.6)	177.6(-1.4)	166.8(-2.3)	166.5(-6.3)
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161.7	161.6(-0.1)	161.1(-0.2)	171.7(-0.6)	157.8(-2.0)	157.4(-8.3)
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	161.7	162.1( 0.2)	161.2( 0.2)	170.0( 1.5)	157.8(-2.1)	157.0(-7.6)
교육서비스업	136.6	137.2( 0.4)	135.8( 1.0)	144.9(-0.9)	133.4(-1.8)	133.5(-7.9)
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	158.6	158.3(-0.2)	156.8(-0.3)	166.2( 0.0)	153.0(-2.4)	152.5(-8.2)
여가 관련 서비스업	149.7	152.7( 2.0)	150.5( 1.0)	161.8( 1.8)	148.8(-1.1)	149.4(-7.7)
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	160.3	162.4( 1.3)	160.9( 1.6)	169.7( 2.1)	158.2(-1.7)	156.5(-7.8)

주: 1)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
2)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.

3) ( ) 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.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

●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

◆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

- 2022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4건
  - － 8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25건)보다 1건 낮은 수치임.
- 2022년 8월 조정성립률 42.1%
  - － 8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11.8%보다 30.3% 높은 수치임.

〈표 1〉 2021년, 2022년 8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조정성립			조정불성립			행정 지도	취하 철회	진행 중	조정 성립률
			소계 A	조정안 수락	합의 취하	소계 B	조정안 거부	조정 중지				
2022. 8	24	25	8	4	4	11	2	9	0	6	6	42.1%
2021. 8	25	19	2	2	0	15	0	15	1	1	13	11.8%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중재사건

- 2022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3건
  - － 8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(1건)보다 2건 많은 수치임.
  - －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, 행정지도,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.

〈표 2〉 2021년, 2022년 8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건수				진행 중
		소계	중재재정	행정지도	취하철회	
2022. 8.	3	0	0	0	0	6
2021. 8.	1	1	0	0	1	2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심판사건

- 2022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49건
  - 8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173건)보다 24건 적은 수치임.
  -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7.6%(42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72.4%(110건)를 차지함.

〈표 3〉 2021년, 2022년 8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2. 8.	149	152	38	4	78	4	18	10	521
2021. 8.	173	166	42	4	66	8	23	23	544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◆ 복수노조사건

- 2022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8건
  - 8월 복수노조사건<sup>1)</sup>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8건)보다 5건 적은 수치임.
  -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3.3%(1건), 기각·각하·취하·화해 비율이 66.7%(2건)를 차지함.

〈표 4〉 2021년, 2022년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			진행 중
		계	전부 인정	일부 인정	기각	각하	취하	화해	
2022. 8	8	3	1	0	0	0	2	0	16
2021. 8	13	6	0	0	6	0	0	0	17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「사건통계」.

- 2022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<sup>2)</sup>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407건
  -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(541건)보다 134건 적은 수치임.
  - 7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(교섭요구 공고, 교섭대표 결정, 교섭단위 분리, 공정대표 의무)는 전년 동월(456건)보다 122건 적은 수치임.

1)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, 교섭대표, 교섭단위,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.  
 2) 〈표 5〉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.

〈표 5〉 2021년, 2022년 7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

	접수 건수	처리 내역				
		계	교섭요구 공고	교섭대표 결정	교섭단위 분리	공정대표 의무
2021	787	724	158	247	106	213
2021. 7	541	456	96	169	63	128
2022. 7	407	334	82	85	48	119

자료 : 중앙노동위원회, 매월 『노동위원회 소식지』.

### ◆ 세브란스 병원 대학병원 최초 주4일제 시범도입

- 8월 8일 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‘주 4일제 시범운영 실시’에 합의했음.
- 시범사업은 병원 근로자 가운데 과로, 이직, 퇴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간호직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임.
- 간호사 중에서도 외래를 제외하고 병동 근무자에 한정됨.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,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2개 병동,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1개 병동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논의됨.
-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면, 향후 다른 직무로 확대 적용할 방침임.
-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해 근로자의 육체·정신 건강, 직무 만족도, 조직문화 개선, 이직·퇴사 감소, 근무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예정임.

### ◆ 르노코리아 임단협 합의

- 8월 31일 르노코리아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(임단협)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, 54.1%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음.
- 노사는 8월 27일 임단협 7차 본교섭을 열고 합의를 하였음.
- 합의 내용은 △기본급 6만 원 인상, △격려금 300만 원, △복지포인트(비즈 포인트) 20만 원 지급과 △휴가비 인상임.
-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을 비롯해 승진·고과·승급제도 개선을 다룰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음.

◆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위해 ‘온라인 비대면 진료’ 도입

- 8월 16일 소방청은 정신건강의학 분야 상담·진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
- 소방청은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(강원·전북·경북·충북) 11개 소방서와 서울대학교병원 간 진료체계를 구축토록 했음.
- 소방청에 따르면, 2017~21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67명임.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근무연수 10년 이내(46.4%)에서 가장 높았음.
- 연령별로 보면 만 39세 이하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절반(49.3%)에 달했음. 시기별로는 매해 5~9월(70%)에 집중됐음.
- 소방청이 위기라고 판단할 때에는 관심·주의·경계 단계별로 찾아갈 수 있는 상담실 ‘전문상담사’를 집중 투입할 예정임. 소방서별 ‘생명존중 협력담당관’을 활용한 생명존중 예방교육, 고충상담·긴급 심리지원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음.
- 소방청은 종래 운영 중인 ‘원클릭신고센터’ 활용도 강화하기로 했음. 소방청 내 원클릭신고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임.
- 소방청이 실시한 ‘2021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’ 결과를 보면, 극단적 행동에 대한 생각의 빈도가 높은 위험군은 응답자의 4.4%(2,390명)였음. 코로나19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·트라우마로 인해 즉각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소방관은 357명(1.4%)이었음.

◆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모두에 11월 말부터 보험료 일부 지원

- 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(소상공인법 시행령)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.
- 지금까지 증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~50%를 지원해 왔음.
-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음.
-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이고 월 고용보험료(1등급 4만 950원~7등급 7만 6,050원)의 20~50%를 지원받게 됨.
- 증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업체 3만 7,000곳 중 약 1만 곳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음.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### ◆ 광주글로벌모터스 주거지원 확대

- 9월 1일 광주광역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GGM 주거지 지원 대상을 종전 무주택 근로자에서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일반직 대리 이하 전원으로 바꿨음.
- 이에 따라 현재 212명인 지원대상은 전체 직원 587명의 89.6%인 526명으로 늘어남(과장 중에서도 연 소득 4,500만 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됨).
- 지원금액도 대폭 올리기로 했음. 실주거비와 금리상승 등을 감안해 월 20만 원에서 27만 2,000원으로 주거비 지원금액을 인상함.
- 광주광역시는 GGM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, 교통, 교육, 문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1,718억 원을 투자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함.
- 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자녀 양육을 위한 공공·공동 직장어린이집의 문을 열고,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도 조속히 조성할 방침임.
- 이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작업의 중심점이 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직·간접적 사회적 임금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음.
- GGM은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등 37개 주주사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 일자리 기업임.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, 노사동반성장,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경영 원칙을 토대로 지금까지 4만 대 가까운 캐스퍼를 생산했음.

### ◆ 경기도, 내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344원 오른 1만 1,485원

- 9월 8일 경기도는 '2023 경기도 생활임금 위원회'를 열고 2023년도 생활임금을 1만 1,485원으로 확정, 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고시했음.
- 이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시급 1만 1,141원보다 344원(3.1%) 인상된 것으로,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(시급 9,620원) 대비 119.4% 수준임.
-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 365원으로, 2022년(232만 8,469원)보다 7만 1,896원을 더 받게 됨.
- 도는 이번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음.
-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, 상용·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,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기준을 도출했음.
-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. 대상은 도 및 도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3,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했음.

◆ 공무원 조기퇴직자 10명 중 9명은 8·9급

- 8월 21일 인사혁신처는 재직기간 5년이 안 되는 공무원 퇴직자가 2017년 5,181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693명으로 두 배로 급증했다고 하였음.
- 이 중 임기제·별정직 및 당연퇴직자 등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자는 4,342명이었고, 여기서 다시 경찰, 소방공무원 등 일반직과 직급 체계가 다른 직종을 뺀 퇴직자는 2,348명으로 집계됐음.
-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직급별로 분류해 본 결과, 9급이 1,483명(63%)으로 가장 많았고, 8급 600명, 7급 210명 순으로 조사됐음. 8·9급 퇴직자가 전체의 89%를 차지하였음.

◆ 코로나 확진 10명 중 3명 “출근 또는 재택근무”

- 8월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「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보고서」를 보면,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는 직장인 353명 중 34.3%는 “코로나19에 확진되도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했다”고 답했음.
- 재택근무를 했다는 응답은 29.5%,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는 응답은 4.8%였음.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절반은 직장에 출근해야 했고, ‘감기·몸살 등 유사증상’을 느낀 직장인 549명 중 49.9%는 직장에 출근해 일했고, 20.4%는 재택근무를 했음.
- 아파도 업무를 해야 했던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음. 코로나19 확진에도 일한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98.8%는 ‘업무적 이유(대신 말을 사람이 없어서·복귀 후 업무 부담·업무성과 저하)’를 꼽았음.
- 비정규직 응답자는 65.8%로 훨씬 적었음. 대신 소득 감소나 인사상 불이익 등 ‘불이익 우려’ 때문에 업무를 계속했다는 응답이 비정규직에서 34.2%로 높았음. 정규직은 8.4%로 4분의 1에 불과했음.

◆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0% ‘신고 뒤 보복 당해’

- 9월 4일 직장갑질119는 1월부터 8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,4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,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사례는 854건이었음.
-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회사나 노동부에 직접 신고한 사례를 추려 봤더니 331건이었음.
-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한 뒤 불리한 처우를 당한 사례가 133건(40.2%·중복)으로 나타났고,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가해자와 분리하는 식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회사가 제대로 이행

- 하지 않는 ‘조치의무 위반’을 겪고 있는 사례가 249건(75.2%)이었음.
-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제보 사례를 토대로 ‘회사가 꼭 알아야 할 직장갑질 신고사건 처리 10문10답’을 만들어 이날 배포했음.

◆ 근로감독 청원 10건 중 3건만 실시

- 9월 12일 직장갑질119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, 2021년 근로감독 신청은 2,740건으로, 이 중 근로감독이 실시된 건은 874건(31.9%)에 그쳤음.
- 근로감독 실시 비율은 2016년 69.2%에서 올해 1~5월 29.2%로 크게 줄었음.
- 근로감독관 1명이 접수한 신고사건은 2016년 307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49% 줄었고, 1인당 담당 사업장은 2016년 1,646곳에서 2021년 1,073건으로 35% 감소했음.

〈표 6〉 근로감독 청원 신청 및 처리현황

(단위: 건, %)

	2016년		2017년	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 5월	
	신청	실시	신청	실시	신청	실시	신청	실시	신청	실시	신청	실시	신청	실시
계	143	99	904	699	1,244	881	2,073	1,070	2,629	869	2,740	874	1,035	302
처리 비율	69.2		74.0		70.8		51.6		33.1		31.9		29.2	

자료 : 직장갑질 119.

(조규준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